

보도시점 2025. 10. 22.(수) 19:00

배포

2025. 10. 22.(수) 17:00

APEC 최초 재무·구조개혁 합동세션과 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 APEC 최초 재무·구조개혁 합동세션 및 재무·구조·ABAC 합동오찬, AI·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협력방향 논의, 정책협력의 새로운 장 마련
- 제4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역내 연결·혁신·번영을 위한 구조개혁 협력방향 논의 본격화

기획재정부는 2025년 10월 21일(화) APEC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일(수)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 및 합동오찬을 진행하고, 22~23일 양일간 진행되는 제4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 APEC 역내 중장기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약 5년 주기로 개최되는 장관 회의로, '08년 1차(호주), '15년 2차(필리핀), '21년 3차(뉴질랜드, 화상) 개최

<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 및 합동오찬 >

구윤철 부총리는 APEC 최초로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이 함께 참여한 ‘혁신과 디지털화(Innovation and Digitalization)’ 합동세션을 주재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강조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AI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투자, 규제 개혁, 인프라, 인재 양성 등 재무·구조개혁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는 ‘구조 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Structural Reform and AI-Driven Digital Transformation)’에 관한 APEC 경제정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주제는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으로 회원 간 합의를 거쳐 채택된 것으로, 역내 AI 및 디지털 전환 촉진과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 완화 등 구체적 협력방향이 내년 보고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열린 합동오찬에는 호주·뉴질랜드·일본·칠레·한국 등 ABAC(APEC 기업 자문위원회) 위원도 함께 참여해, 금융 접근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과 관련된 민관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합동오찬은 2005년 한국 재무 장관회의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구조개혁 장관들도 처음으로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ABAC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회원들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개선, 금융포용 확대, AI 생태계 조성 등 민관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제4차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

22일 오후부터는 구조개혁장관회의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4년 만에,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열린 회의*로, APEC 21개 회원이 모두 참여해 구조개혁 협력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태국·홍콩·파푸아 뉴기니·필리핀·대만 등 구조개혁 담당 부처 장관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차관 등이 함께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통일사법연구소(UNIDROIT) 등 주요 국제기구도 함께 참석해 구조개혁 관련 국제 동향과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AI 등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하며, 올해 정상회의 주제인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①Connect, ②Innovate, ③Prosper”과 연계하여, ①역내 연결성 강화, ②혁신 촉진, ③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구윤철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 AI와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 촉진, 모두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오늘 이 자리가 APEC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논의 되었으며, 내일(23일) 회의에서는 ‘모두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 등 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 및 기타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	책임자	팀 장	류소윤 (044-215-7710)
		담당자	사무관	남궁향 (hyangchos@korea.kr)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	책임자	팀 장	박해정 (044-287-2621)
		담당자	사무관	정소영 (syjeong0214@korea.kr)
		담당자	사무관	조자경 (gongsim3@korea.kr)
	외교부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 협력사업부 재무장관회의준비팀	책임자	팀 장	구교은 (044-287-2611)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yeoni2266@korea.kr)